



## 야생진드기 예방안내문

학부모님께

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산이나 들에 놀러 갈 때에는 야생 진드기를 조심해야 합니다. 진드기에 물리면 피부염을 일으키고 심하면 패혈증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목이나 머리에 물릴 경우 몸이 마비되어 심하면 사망까지 할 수 있습니다. 야생 진드기 관련하여 몇 가지 증상 및 예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.

- ◎ 정의 :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병
- ◎ 특성 : 1) 잠 복 기 : 6일~2주    2) 유행시기 : 4월~11월
- ◎ 증상 : 주증상 - 38~40도를 넘는 고열, 소화기 증상(구토, 설사, 식욕부진 등)  
기타증상 - 두통, 근육통, 림프절 종창(겨드랑이, 사타구니 등이 부어오름)  
진행증상 - 신경계(의식장애, 경련, 혼수), 혈소판 감소로 인한 출혈, 사망



-발열, 피로감, 식욕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 
치사율은 12~30%임.

-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은 없는 상황임.

< 진드기에 물린 자국들 >

- ◎ 치료 :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환자 증상에 따른 내과적 치료 시행
- ◎ 예방 : (※특별한 치료법, 예방 백신이 없으므로 예방이 최선입니다.※)

1. 야외 활동 전
  - 진드기 확인과 제거에 쉬운 밝은 색 옷, 긴 옷 입기(긴팔, 긴바지, 양말 등) 입기
  - 옷이나 노출되는 피부에 해충 기피제 사용하기
2. 야외 활동 시
  -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기
  - 되도록 길의 중앙으로 걷기(근처 식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)
  -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거나, 눕거나 잠을 자지 않기
  -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않기
3. 야외 활동 후
  - 사용한 돗자리 세척하여 햇빛에 말리기
  - 입고 있던 옷, 양말 등은 털고 즉시 세탁하기
  - 즉시 샤워나 목욕하기(특히 머리카락, 귀 주변, 팔 아래, 허리 주위, 무릎 뒤, 다리 사이 등)
  - 진드기에 물렸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기

2017.6.23.

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장